

광주시장 수성 vs 교체... 전남지사 빅매치 성사 관심

<박지원 대 이개호>

지방선거의 해, 3대 쟁점

광주시장 민주 도전자 붓물 국민의당 조용
광주 동·서구청장, 전남 11명 재선 도전
3선 연임 도전장 낸 단체장 전남서만 6명

시·도의원 절반 가까이 단체장 출마 대비
지방의원 '물갈이' 폭 대폭 늘어날 듯
민주당 이미 평가 마무리 조기 선거 점화

6·13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새해 초반부터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현역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재선·3선 도전에 나서면서 수성(守成) 전략을, 이에 도전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승리 전략을 세우며 향후 경선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무술년 새해가 열렸다. 새해 첫날인 1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 내 민주의 종각에서 열린 전라도 정도 천년맞이 타종행사에서 시민들이 올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현역 수성 얼마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총리에 발탁돼 자리를 옮기면서 운장현 광주시장의 현역 수성이 관심 포인트다.

윤 시장은 80년대부터 광주 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대표적 인사로 꼽힌다. 특히, 촛불정국 이후 광주에서도 시민사회·민주화 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가인 윤 시장에게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시장은 임기 중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과 에너지 벨리 조성 등을 통해 광주의 미래 먹거리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부각되고 관련 예산까지 반영되면서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윤 시장의 각종 정책도 실천 단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적 경륜을 앞세운 강기정 전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남구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도 예고돼 있다.

국회의원 3선을 지낸 강 전 의원은 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을 이끈 '38세대'의 대표주자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치적 경륜과 행정 경험이 쌓였다는 평가다. 강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 종합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광주 대선공약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지지단체인 '광주성장 더큐브'와 '무등산 포럼'을 출범시켜 광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민 구청장은 참여자치21 대표를 지내는 등 시민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10여년 이상 호흡을 맞춰왔다. 재선 구청장을 지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섰고, 혁신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제시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최 구청장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면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서 온 경력을 갖고 있다. 재선 기간 전국 최초로 남구를 '문화교육특구'로 운영했으며, 주민이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실현 등이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일자리 문제에 전념해왔다"면서 "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이달 중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 장병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등 중랑급 있는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지사 선거의 경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표는 일찌감치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22개 시·군을 방문하며 표방을 갈고 있다. 주승용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에

서는 이 의원이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송광운 북구청장이 3선 연임을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고, 최영호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다. 현역 자치단체장으로는 김성환 동구청장과 임우진 서구청장의 재선 성공 여부가 관심사다.

전남에서는 22개 자치단체장 중 11명이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선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주철현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전동평 영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구종근 화순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이다. 이 가운데 박홍률 시장은 국민의당 소속이고, 정현복 광양시장과 유두석 장성군수는 무소속이다.

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수가 적은 만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민주당의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페널티 부여'에 따른 컷오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도 현역 수성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3선 도전, 얼마나 성공할까?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직의 꿈인 3선 연임에 도전장을 내민 단체장은 전남에서만 모두 6명이다. 광주에서는 재선인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남구

청장이 모두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광주지역에서는 3선 도전 자치단체장은 없는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조종훈 순천시청 ▲최형식 담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안병호 함평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등 6명이 재선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인 고길호 군수를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선 단체장이려면, 대부분 3선 연임을 노린다. 재선 기간 탄탄한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쉬운 도전만은 아니다. 우선 각 정당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재선이면 충분하다'는 여론 등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또한, 재선 기간 동안 인사와 예산 편성, 각종 행정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고 느끼는 공직자와 지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7명의 자치단체장이 3선 연임에 도전했지만, 이 가운데 3명만이 성공하는 데 그칠 정도로 3선의 벽은 높았다.

지방의원 물갈이 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물갈이'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부분의 현역 기초의원들은 광역의원을 겨냥하고, 현역 광역의원들은 자치단체장 도전을 하고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 폭

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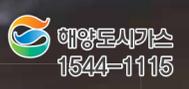
현재 광주시의원 22명 가운데 10여명이 자치단체장 도전을 준비중이고, 전남도의원 58명 중 22명도 자치단체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유턴(U턴)'해 다시 광역의원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자치단체장 도전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 배제와 경선 탈락 등까지 더해질 경우 내년 시·도의원 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략적인 분석이다. 과거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생활율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무리했다. 향후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평가 자료를 토대로 공천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들에 대해서는 '컷오프(공천 배제)'가 아닌 감점제를 도입해 페널티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35%), 공약 이행 평가(20%), 자치분권 활동(15%)이다. 지방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다면 평가(20%), 자치분권 활동(10%) 등이다. 또한, 향후 공천 과정에서 평가항목 이외에도 재임 기간 측근 또는 개인 비리 등도 페널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장애인 후보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하면 감점을 받은 사람은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양도시가스
1544-1115

해양도시가스 모바일 앱 에서 따뜻한 세상을 만나세요!



손쉬운 자가검침



편리한 요금조회 납부



간편한 이사 예약



한번에 서비스 신청



